

◇ 자 료

丁若鏞의 「醫零」 1.

김 대 원

서울대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緒 論

「醫零」의 현존 판본으로는 두가지가 있다. 「與猶堂全書」에 포함되어 있는 간행본 「醫零」과 「與猶堂集」에 있는 原稿本이 그것이다.¹⁾ 이하에서 “간행본”, “원고본”으로 부르겠다. 이 두 판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原稿本에는 “六氣論”, “六氣論二”, “六氣論三”, “外感論一”, “外感論二”, “外感論三”, “裡證論一”, “裡證論二”, “虛實論”, “虛實論二”, “吞酸論”, “非風論”, “腦論”, “劑量論”, “時令論”, “近視論”, “人面瘡論”, “反胃論”, “煎藥說”, “雜說”, “雜說二”, “雜說三”, “雜說四”, “雜說五”, “雜說六”, “雜說七”, “雜說八”, “製附子法”, “集古一”, “集古二”, “集古三”, “集古四”, “集古五”, “集古六”, “集古七”, “集古八”, “加空弄本草”, “藥露記”, “續集一”, “續集二”, “續集三”, “續集四”, “續集五”로 총 43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刊行本에는 이중 “外感論”, “外感論二”, “裡證論二”, “虛實論二”, “吞酸論”, “腦論”, “反胃論”, “煎藥說”, “加空弄本草”, “藥露記” 등이 빠져 총 3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간행본이 원고본의 내용중 일부를 제외시킨 것은 丁若鏞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원래 丁若鏞 저작의 각 장이 10행 22자를 기본으로 하는데 원고본의 경우 양끝이 떨어져 나가고 8행만 남아있었고²⁾ 「與猶堂全書」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편찬자들이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단락을 빼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한 편의 내용이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그 편 전체를 빼버렸는데, 주로 한의학이론을 비판하는 앞부분의 “論”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반면에 한 편이 여러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단절되는 단락만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 편은 남아있게 되며, 이런 경우는 뒷부분 經驗方을 다루는 “說”에서 많이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구성에는 큰 차이가 생기지 않았으나 丁若鏞의 의학사상 이해에 중요한 여러 편이 간행본에는 빠지게 된 것이다.³⁾

1) 「與猶堂全書」는 1935년과 1937년 사이에 新朝鮮社에서 간행되었고, 해방 후에 신조선사본의 영인판(文獻編纂委員會의 영인판 및 景印文化社의 영인판)이 나왔으며, 최근 驪江出版社에서 신조선사본(1988)을 영인하였다. 여강출판사는 「醫零」을 「與猶堂集」에 실지 않고, 「韓國科學技術史大系-醫藥學篇」 제42권에 실었다. 여기서 말하는 “간행본”은 이 책에 실린 것이며, 원고본 「醫零」은 安春根舊藏本(現 精神文化研究院所藏) 「與猶堂集」과 「洙全集」(26冊) 중 「與猶堂集」에 실려있다. 그러나 奎章閣 所藏 「與猶堂集」(78冊)에는 「醫零」이 실려있지 않다.

2) 원고본의 형식에 대해서는 김영호, “「與猶堂集」의 텍스트 검토”, 「정다산연구의 현황」(민음사, 1986), 29쪽에 잘 나타나 있다.

3) 구체적으로 어느 편이 전부 제외되고 어느 편이 일부가 제외되었는지는 뒤의 표에 표시되어 있다.

한편 원고본에도 두 종류가 있다. 「與猶堂集」은 12冊 각각의 책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과 책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두 종류가 있는데 책번호가 표시된 「與猶堂集」은 교정을 거친 定稿本이고 책번호 표시가 없는 「與猶堂集」은 초고본인 것으로 보인다. 「醫零」은 책번호 표시가 없는 「與猶堂集」에만 실려 있기 때문에 초고본일 가능성이 높다. 「醫零」의 원고본을 초고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醫零」은 「與猶堂集」에 「文獻備考刊誤」, 「白彦詩」와 함께 실려 있다. 그러나 丁若鏞이 自撰墓地銘에서 자신의 저작을 분류한 것에 따르면 「文獻備考刊誤」는 “雜文”에, 「醫零」은 “醫學集”에, 「醫零」 뒤에 실려 있는 「白彦詩」는 “詩律”에 들어갈 내용이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야 할 저작들이 함께 실려 있다는 사실은 「醫零」이 실려 있는 「與猶堂集」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초고본을 모아 놓았던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丁若鏞이 “雜文”을 분류한 것에 따르면⁴⁾ 「文獻備考刊誤」는 「與猶堂集」 12책 중 제 10책에 실려있어야 된다. 그러나 「與猶堂集」의 10책은 소실되었기 때문에 「文獻備考刊誤」가 없어야 되는데도 이것이 실려있는 「與猶堂集」은 정고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醫零」의 여러 부분에서 丁若鏞이 「內經」의 구절이나 「芝峰類說」의 많은 내용을 정확히 출처를 말하지 않고 그냥 인용한 것도 「醫零」의 원고가 초고본일 가능성을 보여준다.⁵⁾

이같은 사실은 「醫零」을 다시 정리한 再考本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고본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사실은 원고본이 당초 두 권으로 집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丁若鏞은 自撰墓地銘에서 「醫零」 한 권을 저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原稿本의 “集古”가 시작되는 곳에서 다시 “與猶堂集卷之.”란 말이 있고 “醫零”이란 말이 다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여기부터 2권의 시작임을 짐작케 한다. 또한 集古까지의 분량이 44페이지인 것도 丁若鏞 저작의 한 권의 분량이 10행 22줄로 40페이지 내외인 것과 부합된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醫零」의 정고본이 있었으며, 이것이 소실되고 원고본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醫零」에는 저술년대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여러 곳에 저술년대를 짐작케 하는 구절이 있다. 예를 들어 “雜說七”에는 “내 나이가 五十이 되지 않았는데 치통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은 丁若鏞의 나이가 50살이었던 1811년 이전에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集古八”은, 丁若鏞의 말은 아니고 “지봉유설”의 구절이긴 하지만, 지리산에서 차가 많이 나는 유래와 곡우전 차가 맛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그가 茶山草堂으로 거처를 옮기고 난 후, 자신의 호를 “茶山”으로 짓고 그 호에 대한 설명으로 이 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편 of 저술이 茶山草堂으로 옮긴 후(1808)였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醫零」은 1808년과 1811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醫零”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자. “零”의 뜻을 「大漢和辭典」에서 찾아보면 “서서히 떨어지는 비” “떨어진다” “나머지, 남은 것”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나머지, 남은 것”을 제외하고는 책 제목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렇다고 “나머지”란 뜻이 책 제목으로 아주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뜻으로 “醫零”을 풀어보면 “‘醫’에 관계된 나머지들” 또는 “‘醫’에 관계된 남은 것들”의 뜻이 된다.

4) 趙誠乙은 잠문의 전편을 재구성하였다. “丁若鏞 著作의 體系와 「與猶堂集」雜文의 再構成”, 『규장각』 8(1984), 25-44.

5) 정확한 인용출처가 표시되지 않았던 것은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저술하면서, 구술을 주로 했던 정약용의 저술방식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호의 앞의 글을 참조할 것.

이같은 「醫零」의 뜻으로부터 「醫零」은 다른 책의 부록으로 저술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與猶堂全書」 편찬자들도 「與猶堂全書」 六卷의 「麻科會通」 다음에 「醫零」을 싣고 「醫零」의 위에 「附」자를 첨가한 것을 보면, 이같은 가능성을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추측이 옳다면 「麻科會通」을 저술하면서 참조한 여러종류의 醫書, 특히 「景岳全書」⁶⁾를 읽으면서 느꼈던 문제와 그 외에 「醫」에 관련되어 느꼈던 일반적인 문제를 麻疹 전문서적인 「마과회통」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그가 한의학의 기본이 되는 「內經」의 주요한 이론들에 대한 비판, 당시 널리 읽혔던 「景岳全書」에 대한 비판, 그리고 기존의 의서에서는 볼 수 없는 藥材 다루는 법의 소개 등을 「醫零」에서 부록으로 다루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醫零」의 목차는 뒤의 표에 실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매우 광범위해서 「醫」에 관련되지 않은 것 같은 내용도 담고 있다. 가령 동물들을 解毒하는 방법, 차가 지리산에서 많이 나는 유래, 꽃나무의 이름을 바로잡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六氣論」에서 「反胃論」까지는 의학이론의 비판이 주 내용을 이루고, 그 뒷부분에는 藥材와 관계된 내용으로, 藥材다루는 법과 經驗方이 소개되어 있다. 이 중 의학이론의 비판을 다루는 앞부분의 내용은 「景岳全書」를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경험방을 다룬 내용은 「芝峰類說」로부터의 인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로 미루어 丁若鏞은 「景岳全書」에서 따온 주제들로 「醫零」 앞부분의 체제를 잡고, 뒷부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芝峰類說」을 비롯한 여러 경험방을 수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景岳全書」의 구절들은 「外感論三」, 「裡證論一」, 「裡證論二」, 「虛實論」, 「虛實論二」, 「非風論」, 「時令論」 등에 인용되어 있다. 그리고 「景岳全書」에서 인용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六氣論二」 「六氣論三」, 「外感論一」, 「外感論二」에 인용된 「黃帝內經」의 구절들도 「景岳全書」에서 재인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 구절은 「景岳全書」의 「表證篇四」의 한 곳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表證篇」의 첫 구절은 「醫零」의 「外感論三」에 「景岳全書」에서 따왔다는 말과 함께 인용되어 있고, 이 구절 바로 뒤에 「六氣論二」, 「六氣論三」에 인용된 「內經」의 구절이 연속해서 나온다. 또한 두 면 지나서 「外感論一」, 그 다음면에 「外感論二」에 인용된 「內經」의 구절이 나온다. 丁若鏞은 표증편의 첫 구절은 경약의 말이기 때문에 「景岳全書」에서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나머지 구절들은 경약이 「內經」에서 인용한 구절이기 때문에 자신도 「景岳全書」에서 인용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대신 「內經」에서 인용했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內經」의 구절을 「內經」에 있는 篇의 순서가 아닌 「景岳全書」에 실린 순서대로 인용해 나가는 것에서 확인이 된다. 예를 들어 「黃帝內經」의 「素問」에서는 「六氣論二」에 인용된 「至眞要大論」보다 「六氣論三」의 「陰陽應象大論」이 먼저 나오는데, 이들 구절이 「醫零」에서는 「景岳全書」의 순서를 따라 서로 잇달아 나오는 것은 丁若鏞이 그것들을 「內經」으로부터 직접 뽑은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近視論」에 인용된 여러 사람의 견해도 「景岳全書」의 「眼目篇」 중 述古項에 함께 실려 있는 것들이다. 丁若鏞은 「景岳全書」를 “새로운 견해를 많이 싣고 있으며, 그 변론은 엄밀하고 시원하며 근세의 의서를 다 정리하고 있다”⁷⁾고 아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는 참신한 견해들이 많이 소개된 「景岳全書」를

6) 明의 張介賓(1563-1640)의 저작으로 이 당시 소개된 그의 책은 「景岳全書」를 비롯하여 「類經」, 「圖翼」, 「付翼」 등이었고, 이 책들은 조선후기에 널리 읽혔다. 특히 「景岳全書」에는 八陣方이 소개되어 있었고 이 내용은 醫家들에게 수용되었다.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大阪, 1962), 310쪽.

7) 「張介賓 景岳全書 最多新論 辨駁嚴快 亦近世醫書之淘洗者」: 金信根 編,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통해서 당시 임상 응용에서 문제가 되었던 의학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을 비판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芝峰類說」에서 따온 내용을 싣고 있는 부분은 “雜說五”, “雜說六”, “集古四”, “集古五”, “集古六”, “集古七”, “集古八” 등이다. 이 중 “雜說五”와 “雜說六”의 일부분은 「芝峰類說」에서 따왔다는 표시가 있지만, 나머지는 인용표시없이 그 내용을 싣고 있다. 「芝峰類說」로부터의 인용은 「醫零」에 실려 있는 전체 경험방의 수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단일한 책으로는 「芝峰類說」이 「醫零」의 경험방의 가장 중요한 출처였다.

「醫零」의 목차⁸⁾

六氣論(一). #	六氣 대신 寒, 熱, 燥, 濕이란 四情을 제시.
六氣論二.	相生相剋의 원리에 따른 病因論을 비판.
六氣論三.	五行의 범주를 비판.
外感論一. *	邪氣가 침투하는 경로에 대한 비판.
外感論二. *	十二經絡說을 비판.
外感論(三).	表證에 대한 논의.
裡證論(一).	內傷에 대한 논의.
裡證論二. *	각 장기는 손상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남을 비판.
虛實論.	臟腑의 虛實은 있을 수 없음을 말함.
虛實論二. *	氣의 운행의 이상에 따라 병이 생김을 말함.
吞酸論. *	吐酸證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정리.
非風論. #	근육의 수축의 원리를 들어 자세하게 中風을 설명.
腦論. *	「星湖僊說」에 인용된 「主帝群徵」의 내용. ⁹⁾
劑量論. #	약의 무게를 잴 때 반드시 氣味를 보고 輕重을 따져야 함.
時令論.	계절에 따라 치료방법을 정해놓은 것을 비판.
近視論. #	근시를 음양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비판.
人面瘡論.	얼굴의 부스럼을 귀신의 소행이라 한 것을 비판.
反胃說. *	反胃에 대해 논함.
煎藥說. *	약다리는 법.
雜說. #	술과 인삼다리는 법을 소개.
雜說二. #	煉臍法을 소개.
雜說三. #	清心丸과 蘇元合이란 약제를 맹신하는 것을 비판.
雜說四.	麻疹의 독을 풀려면 두더지를 사용하면 된다고 함.
雜說五. #	浮腫의 치료법을 말하고, 약창의 독을 푸는 법을 말함.
雜說六.	목의 종기를 없애는 법을 말함.
雜說七. #	古方의 간단함과 향촌에서 유행하는 單方을 소개함.

醫藥學篇」第36권 「麻科會通」, 424쪽.

8) *의 표시는 간행본에서 그 편 전체가 빠진 것을 나타낸 것이고 # 표시는 간행본에서 끝부분이나 중간 한 단락이 빠진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숫자를 괄호로 묶은 것은 원고본에는 번호가 없으나, 간행본에 번호가 첨가된 것을 표시한 것이다.

9) 원고본에서 이 편 위에 “當刪”이란 말이 있다. 즉 이 편은 빼라는 것이다.

雜說八. #	설사와 허리통증에 대한 처방을 말함.
製附子法. #	附子다루는 법을 소개.
集古一. #	산약종기와 머리의 열을 치료하는 법을 다룸.
集古二. #	무소뿔과 麥門冬을 다루는 법을 소개.
集古三.	설사의 치료법과 雄黃다루는 법을 소개.
集古四. #	설사치료법을 소개.
集古五. #	心熱과 눈의 이상에 대한 치료법을 말함.
集古六.	동물들이 독화살에 맞았을 때의 치료법.
集古七. #	風疾의 치료법으로 梘絲子를 사용한 말을 인용.
集古八.	지리산에 차가 많이 나는 유래를 말함.
加空空本草. *	水摩의 효능에 대해서 말함.
藥露記. *	醫에는 内外 두 과가 있음을 말함.
續集一. #	귀먹음, 金瘡의 독을 푸는 법과 목이 저린 데 대한 처방.
續集二.	血悶과 설사의 치료법을 소개.
續集三. #	기침치료법을 소개.
續集四.	安息香에 대한 설명.
續集五. #	연주창과 음에 대한 처방.

「醫零」의 번역 1.

六氣論.

「禮記」에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과 같은] 무리에 비기어 보아야 한다”¹⁰⁾ 고 했다. 物을 비길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 무리가 아닌데 비긴다면, 논하고자 하는 본래의 物의 理는 반드시 그릇되고 명확하지도 않을 것이다.

寒과 暑는 자연운행의 때에 따라 나타나는 情이고, 燥와 濕은 物情의 形이다. 火라는 것은 元物의 본체이고, 風이란 것은 元物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황사와 같은 종류이다. 이들의 무리 다름이 이와 같은데, 그 理가 어찌 분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 物情의 形을 논한다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寒 熱 燥 濕뿐이다. 겨울(冬月)에 추위를 접하니 物情이 寒하고, 여름(暑月)에 더위를 접하니 物情이 暑하고, 바람(風)을 맞으면 [物情이] 燥하게 된다…….¹¹⁾ 물을 적시면 [物情이] 濕하게 된다. …… 외 네 가지 중에 寒과 熱은 서로 겸할 수 없고, 燥와 濕도 나란히 있을 수 없다. 열은 燥와 濕 모두에 함께 겸할 수 있으며, 아무런 장애도 있지 않다. 이는 物情의 本然인 것이다.

사람의 모든 병도 역시 네 가지 情만이 서로 偏勝하여 생기는 것이니, 醫者는 이 [이치]에 따라 마땅히 하나, 둘을 헤아리며 西와 東을 가리듯 해야 한다. 오히려 六氣에 깊이 빠져 망연히 그 頭緒를 가리지 못하니, 어떤 병이 그것[六氣]으로부터 말미암는지 또한 어찌 족히 논할 수 있겠는가?

10) 「禮記」 “曲禮下”注(「十三經注疏」 五, 0096면)를 보면 “猶比也. 倫猶類也. 此大夫當於大夫……”.

11) 아래에서 “……”와 같은 표시는 양면이 파손되어 내용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

六氣論二.

「黃帝內經」¹²⁾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清氣가 크게 온 것은 金이 [木을] 이긴 것이니 風木¹³⁾이 邪氣(邪)를 받아 肝病이 생긴다. 熱氣가 크게 온 것은 火가 [金을] 이긴 것이니 金燥가 邪氣를 받아 肺病이 생긴다. 寒氣가 크게 온 것은 水가 [火를] 이긴 것이니 火熱이 邪氣를 받아 心病이 생긴다. 濕氣가 크게 온 것은 土가 [水를] 이긴 것이니 寒水가 邪氣를 받아 腎病이 생긴다. 風氣가 크게 온 것은 木이 「土를」 이긴 것이니 土濕이 邪氣를 받아 脾病이 생긴다.”¹⁴⁾

丁子가 말하기를¹⁵⁾ “[이는] 理가 아니다”. 清氣는 어떤 기운인가? 이것은 차라리 건조한 기(燥氣)가 아니겠는가? 천하에 火보다 건조한 것이 없는데 어찌 金만이 오로지 그 氣를 독차지하는가? 천하에 水보다 습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어찌] 土가 그것을 차지하는가? 情이 서로 통하는 것¹⁶⁾은 熱과 燥이다. 앞에서 火가 이긴다고 했거늘, 어찌 燥가 邪氣를 받겠는가? 「易經」에서 말한 “火가 燥로 나아간다”¹⁷⁾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흙(土)에 습함이 있는 것은 물(水)이 있어 그런 것이다. 물과 만나지 못하게 하면 [흙은] 말라 있을 따름일 것이다. 土가 본래 濕하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섯[六氣]을 다섯[五行]에 짝 맞추니 짝이 딱 맞을 수 있겠는가? [火에는] 君[火]와 相[火] 두 가지가 있으니 어찌하여 火만이 [다른 것보다] 많은가 [즉 두 개인가]? 暑를 熱에 부속시켰는데 처음에 어떻게 그것을 나누겠는가? 五臟은 서로 연결된 것으로 한 가지만 온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의 臟에만 병이 생길 수 있는가? 五臟은 마땅히 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기만이 억눌려서 병이 있을 수 없는데 문득 하나의 臟을 허물한다. [어찌] 의혹됨도 죄도 없는 데 공격하는가? 이러한 모든 잘못된 이론은 鄒衍 이후 讖緯家가 혼란스럽게 한 바이지 ……¹⁸⁾

六氣論三.

「黃帝內經」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겨울에 寒에 상하면 봄에는 반드시 溫病에 걸리고 봄에 風에 상하면 여름에는 泄이 생기고 여름에 暑에 상하면 가을에 반드시 이 생기고 가을에 濕에 상하면 겨울에 반드시 咳嗽가 생긴다.”¹⁹⁾

丁子가 말하기를 “[이는] 理가 아니다”. 寒에 상해서 溫病이 되고 暑에 상해서 해학이 되는

12) 중국 최고의 의학 경전으로 전국시대(475-221 B.C.)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씌어진 공동작품이다. 이 책은 素問과 靈樞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3) 風木은 五行의 木에 風이 배당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뒤에 五行의 각 기운에 따라 배당되어 나타난 말이 金燥, 火熱, 寒水, 土濕 등이다.

14) 「素問」“至真要大論”, 相剋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 처음에는 金剋木하여 木에 배당된 肝이 병을 얻는다는 말이다.

15) 원문에는 ‘丁子曰’로 되어 있다. 여기서 丁子는 丁若鏞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6) “통합”은 得을 번역한 말이다. 여기서 得은 相剋의 剋과는 반대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17) 乾卦의 文言傳 “九五曰：飛龍在天，利見大人 何謂也。子曰：同聲相應，同氣相求，水流濕，火就燥。雲從龍，風從虎。聖人，作而萬物，觀，本乎天者，親上，本乎地者，親下，則各從其類也。”

18) 斷非三代 …… 物家之所可言也.

19) 이 내용은 「黃帝內經」, 「素問」의 “陰陽應象大論篇第一”에 나온다.

경우는 그럴듯하지만, 봄에 風에 상하고 가을에 濕에 상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일인가? 어찌 이치를 궁구하지 않고, 덧구를 배당하여 믿음으로서, 오직 본 바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릇 겨울과 여름에 한기가 많고 더위가 성하여 사람이 상하게 되는 것은 빌미(祟)가 그 중에 숨어 있다가 계절이 바뀌어 그 기세를 발휘한 것이니, 이것은 정말로 그러할 것이다. 봄에는 風이 和暢한데, 어느 곳에 毒이 있으며, 가을의 날은 淸涼한데 어찌 질환을 얻겠는가? 가을은 金에 속하여 이미 金은 燥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을이 습하다고 하겠는가? 네 계절 중 가을의 氣가 특히 燥한데 어디 가서 濕을 얻어 [사람을] 상하게 하겠는가? 여름의 殲泄은 더위 때문이고, 겨울의 咳嗽은 추위 때문이다. 병이 앞의 빌미로 인한다는 것 역시 같은 때에 접촉함 때문인 것이다. 반드시 모두 시간을 건너뛰고 차례를 뛰어넘어서 생긴다면, 어떻게 오늘 추위를 만나 피부가 바로 열고 낮에 더위를 먹어 저녁에 腹疾이 생기는가? 醫者들은 理를 밝히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데, 만약 분배하여 억지로 맞추는 說에 연연하여 몽매하게도 믿어 떠받든다면 그 해는 가볍지 않을 것이다.

外感論一.

『黃帝內經』에서 말하기를, “邪氣가 形에 머무를 때에는 반드시 먼저 皮毛에 깃들고, 머물다 제거되지 않으면 孫絡으로 들어가고, 머물다 제거되지 않으면 絡脈으로 들어가고, 머물다 제거되지 않으면 經脈으로 들어간다. 그런 다음에 안으로 五臟과 이어지며 腸胃에서 흩어진다” 하였다.

천하의 병은 대개 內感에서 기인한다. 병에는 外感이란 것도 있지만 병세 역시 가벼우며 돌다가 스스로 나을 따름이니 가히 內感이라 말할 수 있다. 사람은 귀가 먹어도 살 수 있고 역시 눈이 멀어도 살 수 있고 호흡이 잠시 정지되더라도 ……²⁰⁾ 반드시 이와 같으니 迂回하고 鑽刺할 것인가.

사람은 肌膚가 열고 튼다는 것은 알라도, [寒毒이]²¹⁾ 들어가서 삼켜지는 것은 알지 못하고, 얼굴과 등의 화상의 열은 알지만 暑毒이 깊이 들어감은 알지 못하고, 오이와 썩은 고기가 체해 內傷이 되는 줄은 알면서도, 風雪과 장맥을 삼켜서 접촉되어 내상이 되는 것은 알지 못한다. 만일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한다면 오이도 역시 外物이다. 만일 내상을 이야기한다면 寒暑만이 유독 內侵하지 않는가? 近日에 種痘家は 痘汁만 콧구멍에 넣고 痘가 돋기를 기다리는 데, 외감은 반드시 호흡을 통해서이니 이를 역시 볼 수 있다. 바깥으로부터 感하는 것은 많은 경우 안에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疥癩은 바깥에서만 서로 전하기 때문에 裡證이 없다. 온천은 바깥만 씻어주는 까닭으로 心腹의 질환을 치유할 수 없다. 醫者가 이 理를 깨닫지 못하고서 매양 風寒은 皮毛에서 客하고, 外氣는 經絡에 머무른다고 하여, 빌미에 집착함이 이와 같으니, 바로 신을 신은 채 가려운 데를 긁는 것이다.

外感論二.

『黃帝內經』에 말하기를, “臟腑는 裡가 되고, 經絡은 表가 된다. 手足에 각 六經이 있으니, 이것이 十二經絡이 된다” 하였다.

20) (4字缺)門而.

21) 4자가 빠졌지만, 문장 앞뒤의 덧구로 보면 “不知寒毒”이 될 것이다.

十二經絡의 說은 한편으로는 정확한 듯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茫한 듯하다. 傷寒²²⁾이 傳變하는 법도를 보건대, 그 術은 제법 정밀한 것 같으나, 六陽은 腑에 속하여 表가 되고, 六陰은 臟에 속하여 裡가 된다 하는 것은 어찌 묘망스럽지 않은가? 臟은 반드시 다섯 개가 아니니 莊子는 여섯 개의 臟이 있다고 칭하였는데, 이것은 膽을 함께 일러 臟이라고 하였다. 腑는 반드시 여섯 개가 아니니 三焦는 본래 形殼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없는 것을 일러 수를 채운 것이다. 또한 臟은 어떤 까닭으로 陰에 속하며, 腑는 어떤 이유로 陽에 속하는가? 腑는 어떻게 해서 表가 되며, 臟은 어찌하여 裡가 되는가. 이것은 모두 分排의 說이다…….²³⁾ 병이 비록 表에 있더라도 약을 안으로 넣어서 낫게 되니 어찌 [그것의 있음이 몸 안에는 없겠는가?].²⁴⁾ 병이 비록 裡에 있다고 하더라도 땀이 나도록 하는 解表[藥]을 취하면 낫는데 어찌 병의 있음이 몸 안에만 있겠는가? 내 몸에 병이 생기면 表裏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오직 蛔蟲만 안에 있고, 疥瘡만 밖에 있다. 醫者는 이로부터 마땅히 세밀하게 사고하여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마땅히 의심을 품지 않고 숨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外感論三.

景岳²⁵⁾이 이르기를, “병 중에서 반드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表證²⁶⁾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난다면 곧 表證이 아니다” 하였다.

病의 容態(病容)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勞汗한 데다 風을 맞아 外感을 접해 병을 이루게 된 것이 이것이다. 또한 비록 안에서 생겨 밖에 미친 것이라도, 만약 그 앓는 바가 단지 表證이라면, 곧 表症藥을 써서 그 바깥 증세를 다스릴 수 있다. 理를 따져 특별히 치료를 베푼다 해도 마땅히 같을 것이다.

裡證論²⁷⁾一.

七情²⁸⁾이 상하게 한 것과 피로로 야위게 된 것, 또한 好色하여 손상을 일으킨 것과 같은 것을 內傷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병은 體性과 生養의 근본에 있다. [따라서] 치료는 마땅히 그 깊고 그옥한 것을 탐구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해야 한다. 만일 우연히 음식을 먹고 마셔 생기

22) 넓은 의미에서 외감성 질병을 통틀어 말한다.

23) (4字缺) 身而莫之悟也.

24) 4자가 빠져 있으나 문장 앞뒤의 관계로 볼 때 “不在裡乎” 일 것이다.

25) 張介賓(1563-1640). 字는 會卿, 號는 景岳. 「景岳全書」의 저자.

26) 表에 외사가 침범하여 생긴 병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解表法으로 치료한다(「동의학사전」(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여강출판사, 1989에 영인)). 특별한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약제 증상에 대한 주는 모두 「동의학사전」에서 인용한 것으로 하겠다.

27) 경약의 裏證論은 다음과 같다. “裏證者, 病之在內 在臟也. 凡病自内生 或因七情 或因勞倦 或因飲食所傷 或爲酒色 所因皆爲裏證”. 「四庫全書」, 777-11쪽 上 右.

裡證은 八綱病證의 하나로 내장 장기에 생긴 병증을 말한다. 표증에 상대되는 말이다. 表에 있던 邪氣가 裏에 들어가거나 外邪가 직접 장부와 기타 내장장기에 침범하거나 내상 7정, 음식, 과로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생긴다. 크게 裏寒證, 裏熱證, 裏實證으로 나눈다.

28) 1) 喜(기뻐하는 것), 怒(성내는 것), 憂(근심하는 것), 思(생각하는 것), 悲(슬퍼하는 것), 驚(놀라는 것), 恐(겁내는 것) 등 7가지의 정서를 이르는 말. 칠정이 지나치면 장부기혈에 영향을 주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내장장기에 먼저 병이 생겨서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는 병, 이를테면 오이와 술과 고기를 섞어 먹어 생긴 것은 병은 비록 위중하다 해도 그 치료법은 간단하다. 지금은 그것들 [즉 두 경우]을 나란히 놓고 똑같이 하여 內傷이라고 하는데, 어찌 같은 무리로 비길 수 있겠는가.

裡證論二.

五臟이 傷함을 받으면 얼굴에 五色이 나타난다는 것은 邪說이다…….²⁹⁾ 이것은 術을 익히는 데의 재앙이다. 하물며 耳目口鼻舌이 오장에 나누어 배속됨이…….³⁰⁾ 입이 맛을 아는 까닭이 입술 때문인가? 이빨 때문인가? 역시 혀로 그것을 핥아서 알 따름이다. 말하고 맛을 알 수 있음은 모두 [그것들이] 혀의 소관이기 때문인데, 지금은 말하는 능력은 혀에게 주고, 그 맛을 아는 재능은 빼앗아 입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 혀가 그것을 원망하지 않겠는가. 혀가 만약 속하는 바가 있다면 脾에 속할 따름이다. 心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心을 맞아 [心이] 다스릴 바가 없을 따름이다. 醫는 중요한 일들[말하는 것과 맛을 아는 일]을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데도 도리어 이와 같으니 어찌 억지가 아니겠는가?

虛實論.

表[腑]는 虛한데, 裏[臟]는 實한 사람이 있고, 裏[臟]는 虛한데 表[腑]는 實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제법 그럴싸 하다. 氣와 血은 서로 놓고 기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氣가 쇠약해지면 血도 고갈되고, 血이 盛하면 氣가 왕성하게 되니 여기에 虛實이라는 말은 진실로 명백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같이 치우친 偏勝만이 있을 뿐이다. 臟腑의 경우 어디에 虛와 實이 있는가? 虛하면 전부 虛하고 實하면 전부 實하다. 子母를 따져서 망령되게 補瀉³¹⁾를 행하면 무고한 것을 斬伐 안할 수 없다. 이는 마땅히 삼가해야 한다. 혹시 하나의 臟이 偏敗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것이다.

虛實論二.

景岳이 이르기를, “風寒, 積滯, 痰飲, 瘀血 따위들은 氣가 운행되지 않아 邪가 제거되지 않아서 [생긴 병]이니, 이것은 기의 實(지나침) 때문이다” 하였다.

소위 氣란 것은 어떤 物인가. 이는 곧 元陽을 빌은 이름일 따름이다. 사람 몸의 陰陽을 조화롭게 하여 濕熱이 편승되지 않게 하여 몸에 병이 없게 한다. 그것에 偏勝이 있으면 병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陽이 實한 병은 風寒³²⁾, 積滯³³⁾, 痰飲³⁴⁾, 瘀血³⁵⁾ 따위와 같은 본래의 증상이 있다. 그것을 일러……

「內經」에 말하기를 “五味³⁶⁾가 胃로 들어가면 그 모두 좋아하는 곳으로 간다.” 했는데 丁子가

29) 五臟之云有五色……亂.

30) 4字 缺.

31) 五行의 相生 相剋의 원리에 따라 補하고 瀉하는 것을 말한다.

32) 風邪와 寒邪가 겹친 것을 말한다.

33)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위에 머물러 있는 증이다.

34) 몸 안에 진액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일정한 부위에 몰려서 생긴 병증을 말한다.

35) 피가 몸 안의 일정한 곳에 머물러서 생긴 병증을 말한다.

36) 藥의 다섯가지 味로, 辛, 甘, 酸, 苦, 咸이 그것이다.

말하기를 “理가 아니다……”.³⁷⁾ 物이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면 胃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胃의 열이 熬化시켜, 粗한 것은 二腸으로 보내고 精한 것은 脾家로 보낸다. 脾는 또한 運化시켜 肝家로 보낸다. 肝은 곧 血을 만들어, 精한 것은 心으로 보내 經絡에 도달하게 하는데 이것은 自然의 勢이다. 지금 五味를 五臟에 나누어 배속시켜 五臟 각각이 먼저 그 좋아하는 것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비유컨대 제비둥지에 다섯마리의 새끼가 앉아 있고, [어미] 제비가 먹을 것을 물고 도달했을 때 다섯마리의 새끼가 목을 내밀어 먹을 것을 다투는 것과 같은가? 이와 같다면 어찌 脾胃가 음식을 주관하는 곳이 되겠는가. 이와 같이 살핀다면 五臟이 서로 얽히고 서로 시끄럽게 다투어서 잠시라도 안정할 때가 없는 것이다. 景岳이 ‘내경’에 대한 說에 대해 본래 깊이 따르지 않은 까닭에 스스로 논의한 것은 정확하고 理에 맞는 것이나 기록은 오히려 이와 같이 했으니 이 또한 책을 맹목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모든 說에 그러한 맹목적인 신봉이 담겨 있는데 酸味가 脾를 蠲한다는 說의 경우에는 더욱 스스로 논함의 천박함을 드러내고, [이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대체로 현자의 허물일 따름이다.

吞酸論.

吐酸證³⁸⁾ 대해서 劉守眞³⁹⁾은 그것이 熱 때문이라고 말했고, 李杲⁴⁰⁾는 寒 때문이라고 말했다. 張會卿은 이고를 따라 유수진을 공격하였는데 그 변론이 매우 드세었다. 戴原禮⁴¹⁾는 말하기를 “만일 곡식과 고기가 그릇 안에 있어 濕熱하게 되면 酸이 된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술을 만들 때 서늘하게 만들면 甘이 되고, 熱을 과하게 하면 酸이 된다”고 했다. 張會卿은 말하기를 “밥은 가마솥에서 익을 수는 있지만 酸이 될 수는 없는데, 화력이 강해 빨리 익히게 해서 [달리]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들어내어 그릇 안으로 옮겨 둔다면 오랜 후에 반드시 酸이 되니, 이것은 가만히 쌓여 酸이 되는 것이지, 열로 인해 酸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모든 이론이 모여 다투니……⁴²⁾ 그 논의의 테두리에는 줄기가 있다. 혹은 寒痰 때문이라던가 혹은 熱氣 때문이라던가 혹은……⁴³⁾ 熱 때문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진실로 과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논박하여 寒 때문이라고 하는 것 또한 과연 공정한 논의일까? 張公은 釜食之說로 涼酒의 그릇된 說을 논박하였는데 비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써 기뻐하고 있다. 그렇지만 밥이 솥에 있으면 끝내 짙은 냄새를 피우지 않으나, 만약 脾胃가 잘 소화한다면 마침내는 짙은 냄새를 피울 것이다. 張公은 어찌하여 음식이 목구멍 아래로 내려간 뒤를 바로 술을 만든다는

37) 4字 缺.

38) 胃로부터 입으로 산성의 물이 나오는 증상으로 脾胃가 虛寒하거나 宿食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또는 위에 痰火가 있을 때 생긴다.

39) 劉完素(약 1120-1200). 金의 저명한 의학가. 金元四大家 중 한 사람. 字는 守眞. 涼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여 心火를 내림으로써 腎水를 북돋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河間學派를 창시. 『中醫人物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8) 164쪽. 유수진, 이고, 戴原禮에 대한 자세한 평전과 그들의 의학사상은 姜春華編著, 姜光華整理, 『歷代中醫學家評析』(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참조할 것.

40) 李杲(1180-1251). 金元の 저명한 醫學家. 字는 明之. 晚號는 東垣(老人). 眞定(지금은 河北正定)人. 金元四大家 중 한 사람으로 “補土派”의 대표인물. 위의 책, 210-211쪽.

41) 戴原禮(1324-1405). 明의 醫學家. 名은 思恭, “元禮”라고도 쓴다. 朱丹溪의 영향을 받았다. 위의 책, 675쪽.

42) 逞氣……也.

43) 以宿(4字 缺)形.

것과 같은 理로 보았는가? 처음 변하여 酸이 되고 점차 변하여 甘이 되는데, 잘 되지 않으면 苦酸이 되어 맑은 것은 肌理에 도달할 수 있고, 濁한 것은 糟粕이 될 수 있다. 열이 너무 지나치면 끓는 소리가 나고 위로 넘쳐나고, 서늘하면 떨어져서 化하지 않는다. 그 理가 아주 꼭 들어 맞는다. 어찌하여 張公이 그것을 공격하는데 그토록 매서운가? 다만 그가 熱만을 위주로 한다면 가히 흔들려 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非風論.

景岳의 비풍에 대한 논의(非風之論⁴⁴⁾)는 진실로 천고의 독특한 견해이다. 모든 風痺⁴⁵⁾에 대해 溫補[法]을 따라 논하는 것이 역시 옳을 것이다. 다만 논리가 아직도 명쾌하지 못해서 庸醫⁴⁶⁾들이 잘 信服하지 못할까 한다. 내가 보기에 口眼喎斜⁴⁷⁾와 手足麻木⁴⁸⁾과 風痺 때문에 생긴 것들은 모두 근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근육이라는 것은 濕하고 熱이 있으면 퍼져서 늘어지고, 燥하고 冷하면 오무러들고 뻣뻣해진다. 소 근육이나 사슴 근육으로 시험을 해 보면 그 理가 명확해질 수 있다. 즉 風痺라는 증상은 대체로 血源이 虛冷하거나 眞陽이 衰歇하거나 혹은 氣血이 乾澁해서 생긴다. 그런데 宋·元의 여러 의사들의 치료법은, 오직 祛濕⁴⁹⁾과 清熱⁵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병을 얻은 사람은 백명 중 한명도 낫지 않는다. [이것은] 병이 猛虐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 病人 즉 血病이나 筋이 기를 바를 잃은 것이다. 대체로 탐구와 토의가 거의 매우 심오한 곳에 도달했으나 오히려 ……⁵¹⁾ 깃발을 세운 것이다. 내 그러한 까닭에 그것을 해아려 풀 것이 이와 같다.

腦論.⁵²⁾

뼈가 있고 살이 있어야만 몸의 形이 갖추어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본래는 熱 때문에 生하고 血 때문에 養하고, 氣 때문에 動覺한다. 하나만 빠져도 사람이 될 수 없다. 三肢는 몸뚱이 안에서 君이 되는데 心, 肝, 腦를 말하고, 나머지 肢는 모두 [이들에게서] 명을 받는다. 이제

44) 「景岳全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그 正名篇만 보기로 하자

非風一證 則時人所謂中風證也. 此證多見卒倒 卒倒多由昏慢 皆內傷積損頹敗而然原非外感風寒所致 而古今相傳成而中風名之. 其誤甚矣. 余欲易去中風二字而擬名類風. 又欲擬名俗然類風屬風乃與風字相近恐後人不解. 「四庫全書」, 777-203쪽

凡非風口眼歪斜, 半身不隨, 乃四肢無力, 掉搖拘攣之屬皆筋骨之病也. 「四庫全書」, 777-209쪽.

그리고 근육이 간과 신에 배당되기 때문에 養血해야 된다고 한다(肝主筋腎主骨肝臟血腎臟精).

45) 痺證의 하나. 風寒濕의 邪氣가 팔다리의 뼈마디의 경락에 침범해서 생기는데 그 중에서 風邪가 성한 비중을 말한다.

46) 지난날에 기술이 낮은 의사를 가르키던 말.

47) 口眼喎斜라고도 한다. 입과 눈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병증. 풍담이 경맥에 침습해서 생긴다.

48) 麻木은 감각이 둔해지거나 없어진 증을 말한다. 기혈이 허해서 경맥을 자양하지 못할 때나 기혈이 몰리거나 한, 습, 담이 경맥에 침습해서 생긴다.

49) 습사를 없애는 치료방법을 통털어 이르는 말. 火濕, 燥濕, 裏濕 법이 있다.

50) 성질이 찬약으로 열을 내리우게 한다는 말.

51) 4字 缺.

52) 이 부분은 원래 「主帝群微」에 실려 있던 부분이다. 번역은 「국역분류오주연문장전산고」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약간의 수정을 거친 것이다.

논하건대, 피의 由來는 반드시 음식이 화하는 것을 의지하니, 음식은 먼저 齒刀를 거치고 다음에 胃釜를 거쳐서, 거친 것, 가는 것은 모두 大絡으로 돌아간다. 가는 것은 肝, 腦에 올라가서 血을 이룰 수 있고, 거친 것은 찌꺼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가는 것을 남기고 거친 것을 나누어 내는 작용을 하는 곳은 脾이고, 온갖 物 때문에 몸에 고통이 생긴 것을 거두어 주는 곳은 膽이며, 아직 소화되지 않은 것을 흡수 저장하는 기관은 腎이다. 脾, 膽, 腎이 비록 모두 血을 만드는 臟器이지만, 肝이 홀로 變結하여 다시 體性的 氣를 生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간이 귀한 것이다. 肝은 體內를 엿보아 절반쯤 변한 곡물을 거두어 점차로 本力을 따라 완전히 변하게 하여 血로 만들고, 血의 精은 나누어지고 다시 변하여 血露가 되니 이른바 體性的 氣이다. 이 氣가 가장 細하여 百脈을 통할 수 있고, 百竅를 이끌고 血을 끌어 온 몸에 주행시키고 또 本血 一分이 大絡에서 나와 心에 들어가는데, 먼저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왼쪽 구멍으로 옮기어 점차로 細微한 데 이르러서는 절반이 변하여 血露가 되니 이것이 이른바 生養의 氣이다. 이 氣는 능히 細한 血을 끌어 온 몸에 주행시켜서 元熱을 보존한다. 또 이 露 1-2분이 大絡을 따라 腦中으로 올라가서는 또 변하여 더욱 細해지고 더욱 精해져서 動覺의 氣가 되고, 곧 五官과 四體의 動覺으로 하여금 각기 그 分을 얻도록 한다. <“몸은 반드시 血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三氣와 함께 周通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어떤 이가 묻자 湯若望이 답하기를] “사람의 몸은 熱과 濕의 二勢를 갖추고 있는데, 熱은 항상 濕을 제거하기에 끊임이 없으나, 만일 資養하여 빠진 것을 보충함이 없으면 膚肉이 검게 타고 몸이 모두 타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血이란 것은 資養의 자료이다. 血은 脈을 타고 다니는데, 脈을 총괄한 것이>⁵³⁾ 絡이다. 絡은 肝으로부터 나온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가서 각기 점차 小脈으로 나누어져서 가장 細微한 데에 이른다. [무릇 안으로는] 臟腑와 밖으로 膚肉에까지 관통되지 않음이 없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脈의 容은 마치 그 실을 機하는 것과 같아서 혹은 順으로 가고 혹은 비껴서(斜) 가고, 가로로(橫) 가기도 한다. 順이란 것은 血의 勢를 인하여 그것을 인도하는 데 이롭게 하는 것이고, 斜란 것은 血을 정지시켜 물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橫이란 것은 血을 보내서 전진시키는 것이다. 脈의 힘은 또 血을 보존하여 敗壞되지 않게 한다. 血이 痰에 뭉쳤을 때는 다스려 유통시키고, 膽에 뭉쳤을 때는 곧 응고되지 않게 하며, 體性的 氣에 뭉쳤을 때는 곧 그 구멍을 열어서 인도하여 閉塞되지 않게 한다.

心으로부터 나온 것 또한 두 大絡이 있는데,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가서, 그 細하게 나누어져서 온 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모두 肝의 絡과 같다. 肝의 絡과 같지 않은 것은, 肝은 血을 주행시키면서 血을 보존시키는데 心은 오로지 熱勢를 導引함과 生養하는 길일 뿐이다. 心은 호흡으로써 新氣를 진입시키고 舊氣를 퇴출시키어 곧장 온 몸으로 퍼져나가게 한다. 그러면 脈이 따라서 여기에 응하는데, 잠깐이라도 응하지 않으면 문득 寒, 熱 등 여러가지 병증이 생긴다. 醫者가 반드시 三部의 약동하는 勢로 병의 근원을 헤아려 알아내는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腦로써 動覺의 氣를 흘뜨려 놓는데, 그 용도는 筋에 있다. 다만 腦가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筋을 끌어다 온갖 肢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다시 頸節과 髓를 통하여 뇌와 연결시킨 덩어리로 만들어서 두루 미치게 되었다. 腦의 거죽은 內層, 外層으로 나누어졌는데, 내층은 부드럽고 외층은 거세다. 이미 本氣를 保全하고, 또 모든 筋의 始原이 되기도 한다. 筋이 腦로

53) 「醫書」의 양끝이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 > 안의 부분이 빠져있다.

부터 나온 것이 六偶인데, 一偶만이 목을 지나 가슴 아래 이르러서 胃口 앞에 드리우고, 나머지는 모두 정수리 안에 들어 있어 五官이 氣를 인도하되, 혹은 動하게 하고 혹은 覺하게도 하며, 또 髓를 따라 筋 三十偶가 나와서 각기 細脈이 있어 결으로 나누어가서 어느 膚나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그 膚와 연결한 곳은 약간 변하여 膚처럼 되는데, 비로소 이를 緣해서 氣를 끌어당겨 膚 속에 들이면, [氣가] 온 몸에 충만하여 미처가지 않은 데가 없게 된다. <筋의 體는 양이 그 속이고, 皮가 그 거죽인데, 腦에서 무리지어(類) 腦와 온 몸을 연결하는 要約이 되며, 즉 心과 肝에서 發하는 脈絡도 역시 그 體를 닮아서 本體의 情을 온 몸에 전한다. 대체로 心, 腦와 肝 이 세가지는 體에서 정해진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筋脈의 勢를 힘입어야만 능히 몸과 서로 묶이고 서로 연관되어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7尺의 몸뚱이를 저 세가지가 어떻게 榮衛시키어>⁵⁴⁾ 生養, 動覺의 肢로 하여금 각기 영험을 나타내게 하겠는가.(湯氏群徵⁵⁵⁾) 성호선생이 말하기를 “이 이론은 중국 醫家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자세하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니] 잊어버릴 수 없다”고 했다.

劑量論.

약의 무게를 달 때는 반드시 그 氣味⁵⁶⁾를 보고 그 輕重을 재어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한갓 古方을 고집하여 그 이름만을 지키기에 급급하여 그 實을 가버려 여긴다.

黃連⁵⁷⁾의 味에 대해 시론해 보자.⁵⁸⁾ 醫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 唐黃連일 뿐이다. 일본의 黃連의 苦味와 寒氣⁵⁹⁾는 [당황연의] 두 배인데도 方에 한 돈이라 한다고 一錢을 사용한다. 朝鮮의 黃連은 본래 같은 종류가 아니고 또한 薄劣한데도 方에서 칠푼이라 한다고 하여 칠푼을 사용한다⁶⁰⁾. 옛날 醫들은 唐黃連으로 양을 짐작하여 약을 썼으나, 지금은 맛이 강한 것과 약한 것(劣)을 한가지로 하여 나란히 놓으니 그 본뜻을 모두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나라의 이른바 沙參(더덕)은 냉이 종류일 뿐, 본래 다른 物이다. 중국과 무역한 것을 시험 삼아 [그것과 비교해] 보면 尾參과 흡사하여 진실로 인삼 대신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예로 厚朴을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唐材를 사용한 까닭으로 許氏 湯液篇⁶¹⁾ 역시 唐字로 표시하였으나, 근래 사 오십년 이래부터는 홀연히 제주산 후박을 칭하는 말이 되어 이제부터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내 일찌기 후박 맛을 본 적이 있는데, 본초에 있는 설명과 크게 달랐고 중국에서 무역해서 가지고 온 것보다도 다른 것이었다. 그 껍질색은 서로 유사하나 그 내부[果肉]는 매우 달랐다. 제주에서 나는 것은 기미가 둔열해서 입맛을 역겹게 하지만,

54) 「醫零」의 양끝이 잘렸기 때문에 < > 안의 부분이 빠져있다.

55) 湯若望의 「主帝群徵」을 말한다.

56) 약물의 성능과 맛을 말한다.

57) 매자나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인 산련풀의 뿌리줄기를 말린 것이다.

58) 黃連에 관련된 유사한 내용이 「雅言覺非」에도 실려있다. 「醫零」의 내용과 비교해 볼때, 「雅言覺非」의 내용이 더 다듬어져 있는 것 같다. 다음 주에 그 예가 나온다.

59) 苦寒, 寒은 中藥의 四性중 하나. 「本草經集注.序靈」: “藥有酸咸甘苦辛五味, 又寒熱溫涼四氣”. 上海中醫學院中醫文獻研究所編, 「中國醫籍字典」(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9), 208-209쪽.

60) 열푼이 한 돈이다. 方대로라면 맛이 강한 것을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맛을 한번이라도 보았다면 이런 잘못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61) 「雅言覺非」에서는 이 부분이 “許浚撰東醫寶鑑, 湯液本草, 厚朴標唐字”로 되어있다.

중국의 물품은 입에 들어가면 아주 매워서(辣烈) 목구멍 아래로 막혔던 것을 통하게 하니, 그 다른 점이 이와 같다.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같이 취급하니, 이것은 후박의 이름만을 복용할 따름이다. 또한 牡丹皮⁶²⁾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귀해서 오직 宰相, 이름난 동산[園]만이 겨우 一, 二本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⁶³⁾

時令論.⁶⁴⁾

景岳은 “사람은 더운 계절에 박은 뜨겁지만 안은 차고, 추운 겨울에는 박은 차지만 사람의 몸은 뜨겁다”고 하여 우물의 물이 여름에 차고 겨울에 따뜻한 것으로써 이를 비유했다. 時令藥을 금지한 것은 진실로 크게 깨우친 견해이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그 内外의 견해(說)는 역시 체험을 하지 않고 [내린] 견해에 불과하다. 내가 사람의 肌肉과 皮膚를 보니 하절기에는 얼음과 같이 크게 서늘하며 동절기에는 綿과 같이 크게 따뜻하다. 대저 천지의 理는 物을 育하게 하니 그 까닭으로 鳥獸는 겨울에 털이 나고 여름에는 맨 가죽이 되고 대체로 추위와 더위에 견딜 수 있게 된다. 사람의 肌肉이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따뜻함이 어찌 이 理와 다르겠는가?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마땅히 살펴야 함은 오직 外氣뿐이다. 外氣가 사람의 장부로 들어가고 피부에 접촉하여 中喝, 中暑⁶⁵⁾한 사람은 寒冷한 약을 사용하여 씻어내야 한다 (이것은 여름의 경우만 이야기한 것이다). 一, 二劑만 사용하면 병은 그칠 것이다. 사람 몸의 本氣에 대해 말하자면 여름에는 크게 냉하고 겨울에는 크게 따뜻하니 時令藥을 과용하면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承旨 權坪이 여름에 淸暑六和湯 五貼을 복용하고 風痺가 더 성하여 죽었다. 그는 인삼의 약효가 약한 줄 모르고 倭黃連을 많이 복용하여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⁶⁶⁾.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여름에 겉과 속이 모두 다 冷하다).

近視論.

李明之는 “가까운 것을 볼 수 없는 자는 陽이 부족하고,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자는 陰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王海藏⁶⁷⁾은 “가까운 것을 볼 수 없는 자는 水가 없고, 먼 것을 볼 수 없는 자는 火가 없다”고 하였고, 劉宗厚⁶⁸⁾는 “陰氣가 안에서 밝아 가까운 곳을 잘 보고 陽氣가 안에서 어두워 먼 곳을 잘 본다”고 하였고, 張介賓은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62) 牡丹에 관련된 내용도 「雅言覺非」에서 볼 수 있다.

63) 何藥鋪之得牡丹皮津……不亦可笑矣.

64) 계절에 따라 해야 할 치료방법을 정해 놓은 것.

65) 여름철에 무더울 때 더위를 받아 생긴 중한 병증. 中喝과 中暑는 같은 말이다.

66) 왜황연은 한냉제이고 인삼은 열이 있는 약제이다. 인삼에 비해 왜황연의 한냉의 성분이 너무 강하여 사람의 몸이 여름에는 한냉한데 한냉제를 복용하여 도리어 화를 당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67) 王好古. 金元の 저명한 醫藥學家. 字는 進之. 號는 海藏. 越州(지금은 河北에 속함)人. 활동년대는 일설에는 13세기라 하고 또 다른 일설에는 13-14세기 사이라고 한다. 經史에 통하고 의술에도 밝아 張元素와 李東垣의 장점만을 취하였다. 仲景의 학을 종지로 삼고 元素와 東垣의 설을 참조하여 “隨脈察病, 逐脈定方”을 주장하였다. 「中醫人物詞典」, 47쪽.

68) 劉純. 明醫家. 字는 宗厚. 조상의 籍은 淮南吳陵이며, 洪武(1368-1398)년간 關中咸(지금은 陝西西安)에 거하였다. 아버지 劉橋泉은 朱丹溪의 제자였는데 유순은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부터 의학을 배웠다. 그리고 名醫인 馮庭幹, 許宗魯, 邱克容을 따라 배웠다. 醫經과 역대 名家의 책을 중심으로 「醫經小學」6권(1368)을 저술하였다. 위의 책, 153쪽.

陰이 부족하고, 먼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陽이 부족하다”고 했다. ……⁶⁹⁾ 말이 많이 오고 갔지만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려움은 필경 둥근 물체를 어디서 잘라야 할지 모르는 사정과 같다. 눈의 近視, 遠視는 오직 瞳丸의 平突에만 관계할 뿐이다. 편평하면 보는 것의 중심(視心)이 먼 데서 맺혀서 遠視가 되고 돌출하면 視心이 가까운데 맺혀서 短視가 된다. 만일 안경(眼鏡)이 편평하면 문자가 눈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도 잘 볼 수 있고, 안경이 돌출하면 가까운 것은 잘 볼 수 있어도 점점 멀리 볼수록 눈부셔서 잘 볼 수 없다. 소년은 혈기가 막 짜를 듯 하여서 瞳丸이 돌출하니 가까운 것을 잘 보고(利於近) 노인은 혈기가 점점 늘어져서 瞳丸이 平漫해지니 도리어 물건이 눈에서 점점 멀리 떨어지도록 하게 한다. 이것은 모두 눈 앞에 나타나는 것의 理 [때문]이지 陰陽에 그 뜻을 구해 분분할 것인가. 사람 중 短視인 자는 그 눈동자를 보면 모두 돌출이 이상하다.

人面瘡論.⁷⁰⁾

人面瘡을 사람들은 괴이한 질병이라고 여겨 귀신의 짓이라고 의심한다. 나는 아직 이 병은 보지 못했지만 理로 그것을 따져보면 괴이할 것이 없다. 무릇 物의 바깥이 밝고 번지르하고 그 안이 어둡고 검은 것에 物을 비춘다면 모두 거울에서처럼 드러난다. 만일 瘡窠가 [밖이] 밝고 번지르하면서 부리에 검은 膿이 있다면 人面을 그곳에 비출 때 반드시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사람이 찡그리면 같이 찡그리고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는데 이것은 또한 작은 거울이다. [그러니] 어찌 괴이한 뜻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부스럼 즉 黑疔이다. 무릇 부스럼이 검은 것은 모두 독이 성해서 그런 것이다. 이를 치료하는 것은 痘家の 흑정에서와 같은 방법이다. 당황하고 놀래서 허겁지겁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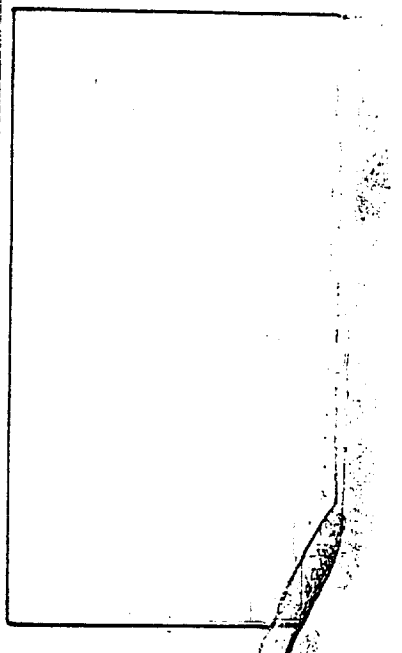
69) …… 出陰陽二字丁子 ……

70) 인면창은 옛날에 쓰던 병명으로 무릎이나 팔꿈치에 생긴 창양을 말한다.

『醫零』의 原文 1.

與猶堂集卷之
醫零
六氣論
體曰。人。必。有。其。倫。儼。物。亦。然。儼。非。其。倫。即。其。所。論。本。物。
之。理。亦。必。滲。底。而。不。明。矣。夫。寒。暑。者。天。時。之。情。也。燥。濕。者。
物。情。之。形。也。人。者。元。物。之。本。體。也。風。者。因。元。物。而。成。與。靈。
雨。類。也。其。不。倫。若。此。其。理。安。得。獨。明。哉。今。論。物。情。之。形。有。
四。唯。寒。熱。燥。濕。而。已。冬。月。觸。寒。則。物。情。寒。暑。月。觸。熱。則。物。
情。熱。風。觸。之。則。燥。

冽水 丁鏞 著



風氣大來水之勝也。上濕受邪。脾病生焉。丁子曰。非也。
清氣何氣。無乃燥氣乎。天下莫燥於火。而金獨專之。天下
莫濕於水。而土獨據之。情之相得者。熱與燥也。既云火
勝何燥。受邪易曰。火成燥者。非耶。土之有濕水。為之也。令
不與水交。則乾燥已矣。謂上本濕。不己。濕以六配。天得
無相。相須。相有一何火之獨多乎。以暑熱初何分之
一。可抑而。臟有不能獨安。何以。臟之獨病乎。五臟宜補無
忌。略之論。邪針以。藏釋家。所謂。氣斷非。二氏。
物家。所。可。也。

熱水觸之則燥。而
之。四。皆。之。中。寒。與。熱。不。能。相。乘。燥。與。濕。不。能。并。
熱。之。性。燥。濕。也。相。乘。并。有。不。相。並。礙。此。物。情。之。本。然。者。也。
人。之。百。病。亦。唯。是。四。情。之。有。偏。勝。而。致。之。者。醫。者。於。此。正。
宜。如。數。一。一。如。辨。西。東。細。乃。沈。淪。於。六。氣。之。中。茫。然。不。辨。
其。頭。緒。又。何。始。終。之。足。論。哉。

六氣論二

經曰。清氣大來金之勝也。暴水受邪。肝病生焉。熱氣大來
火之勝也。金燥受邪。肺病生焉。寒氣大來水之勝也。火熱
受邪。心病生焉。濕氣大來土之勝也。寒水受邪。腎病生焉。

明哉

六氣論三

經曰冬傷於寒春必溫病春傷於風夏生飧泄夏傷於暑秋必痄腮秋傷於濕冬生咳嗽丁子曰非理也傷寒而爲溫病傷暑而爲痄腮也春傷於風秋傷於濕又何事也無乃不究以錄信口對施唯所見之要均予夫陰不復和陽何所中森秋曰清涼何以得疾秋屬金既云金燥何謂秋滿四時之中秋氣特燥何往得濕而主中傷于夏之飧泄暑氣之也冬之咳嗽寒氣之也病因前崇亦因時

陽必皆踰時越序而乃發則何今日觸寒則膚已凍而當午飲暑夕已腹疾于醫者假要明理苟有分排傳舍之說驟然奉信爲害不淺矣

外感論一

經云邪氣之客於形也必先客於皮膚毛腠而不內入於經脈故傷而不入於經脈留而不入於經脈者其有外感者病亦淺輕旋自瘳可謂內感入可覺而生亦可暗而治門吸可覺得

明哉

六氣論三

門而必如是透回鑽刺予人知肌膚之凍皸而夏傷於暑之吸春也人知面首之焦熱而不知暑毒之深入也人爲痄腮微肉之滯爲門傷而不知暑毒之入也人爲痄腮也如云外來瓜果亦外物也如云門傷寒暑獨不門受乎近日種種家單以痘汁納于鼻孔而謂其爲外感之必由呼吸此亦可見感于外者多不內達於肺以外相傳故無從證溫泉由外浴洗故不能療心腹之疾醫者不曉此理每謂風寒客於皮毛外無留於經絡孰宗如此未有不

隔靴而爬者也

外感論二

十二經之說一以精確一似渺茫以傷寒傳變之度則其術以精六陽腑爲表六陰腑爲裏者豈非渺茫乎其本無形故是指無而充數也且臟何以爲腑腑何以爲腑陽乎腑何以爲表臟何以爲裏于此皆分排之

明哉

六氣論三

身而莫之惜也。病雖在表。難入裡而愈。易在夏傷於暑。病雖在裡。取汗。解衣而愈。易在其裡。不可見。此身有病。而表裡異結。唯此病在表。而愈在外。醫者於此。正宜細思。而明認之。不宜含疑而匿患也。

外感論三

景岳云。病由表而入者。才得謂之表證。若由內以及外。便非表證。病容有自表而入者。如勞汗當風。而觸感成疾者。是也。又雖由內以及外。若其所患。只是表證。便可用表症藥治。其

表證雖殊。施治宜同也。

裡證論一

七情之所傷。勞倦之所瘁。又如好色致損者。謂之內傷。可也。此病在裡。性。養心源。治宜按劑。其深奧者。偶然食飲致病。如瓜果。酒食之所爲者。病雖危重。治法宜淺。今此而同一均之。謂內傷。豈所謂擬以其倫者乎。

裡證論二

五臟受傷。而發五色者。邪說也。五臟之云。有妄也。

明哉

六氣論三

凡此學術之災也。況可目口鼻舌之分。屬五臟。梗傷於暑。口之所以知味者。以唇舌以齒。亦以舌。絃之而知可。音與知味。皆舌之所官。而今獨以能言。舌奪其知味之。才以予口。美否其不究。予舌若有屬。屬於脾。而己其云。屬心。適心無所領耳。醫何等重事也。而顧如是。愚隱哉。

虛實論

有表虛而裏實者。有裏虛而表實者。此固然矣。至於氣血相生。相養。氣衰則血消。血盛則氣旺。其云有虛實者。實未

明白。然猶之有偏勝者。若夫臟腑安有虛實。虛則全虛。實則全實。視其子母而安行補瀉。未有不斬伐無辜者。其宜慎之。其或一臟之偏敗者。則容有之。

虛實論二

景岳云。凡氣虛。精竭。痰阻。血之屬。氣不行。則邪不除。此氣之實也。所謂氣者。何物。茲乃元陽之假之名。可使人之身陰陽調和。濕熱不偏。勝斯無病矣。其有偏勝。病始作焉。然陽實。病具有本症。如風寒。精滯。痰飲。瘀血之屬。謂之。

明哉

六氣論三

內經曰五味入胃各歸所喜丁子曰非理也夫腹傷於暑
 物下咽即入胃中胃火熱化粗者送于二腸精者藏于脾
 家脾又運化傳于肝家肝乃造血精者傳于心以達于經
 絡此自然之理也今以五味分屬五臟謂五臟各先受
 其所喜比如燕巢坐著五子燕銜食至五子爭先仰哺者
 予既然如此何以脾胃為飲食之所主也予嘗如是也五
 臟交相關乳無時而可暫安矣景岳於內經之說本不深
 遵故其所自論精確當理而猶錄是語不亦過於信書者

明哉

六氣論三

也其中焦之有梗或以寒痰或以熱氣或以宿便傷於暑
 形執之為熱者固有失矣駁之為寒者亦果公論乎張
 得釜食之說以駁涼酒之非未嘗不躍然以喜也然食在
 釜終不腐腐臭也若脾胃喜消則終腐腐臭是公將奈何
 飲食下咽之後正與造酒同理始變為酸漸變為甘不善
 則腐若酸清可以速肌理濁可以為糟相太熱則沸而
 上溢已涼則生澀而不化其理恰然相符合何公攻之太
 峻耶但其偏上於熱則可謂切矣

予諸說存之而已至於酸味剋脾之說又若予自論漢信
 不疑此蓋賢者之過耳

吞酸論

吐酸證劉守真言其屬熱李杲言其屬寒張合卿宗李攻
 劉其辯甚健戴原禮曰如穀肉在器濕熱則腐酸又有曰
 造酒者涼作則甘過熱則酸張會卿曰食在釜中能化而
 不能酸以火力強而速化無滯也若起置器中必久而酸
 酸此停積而酸非因熱而酸也諸家聚訟還氣

非風論

景岳非風之論誠千古獨見其於一切風痺議從溫補亦
 是矣但其論理尚欠明快恐庸醫不肯信服余謂口眼喎
 裏手足麻木一切風痺之所錄生皆筋之所屬也筋之屬
 物濕熱則舒緩燥冷則縮掣試將牛筋履筋而試驗之其
 理可明也即風痺一證聚由血源虛冷或真陽衰歇或氣
 血乾澀方成此疾宋元諸醫之治此也唯以祛濕清熱為
 主所以人得此疾百無一痊非病之猛虐然也

當冊

明哉

六氣論三

病則血病而筋失所養茲按討幾達閭奧而復傷於暑建機也余故廣釋之如此

腦論

有骨有肉身形備矣然必須本然為生血為養氣為動靜缺一不可人備之哉打身內為君曰心曰肝曰脾而腦為臣待命焉今論血所由來必賴食化食歷齒刀次歷胃全而腦細悉歸大絡第細者可以計至肝臟成血腦者為洋于此之際仔細分屬在脾包收諸物害身之苦者腦也吸

明哉

六氣論三

經脈從肝出者二一上一下各輸分小脈至微傷於暑而腦外而膚肉無不貫串莫定其數脈之各似機勝於或順或斜與橫順者因以勢而利導之斜者曲而無違橫者送血使進也脈之力人能存與今敗壞以合于痰乃克順流合于腦乃免凝滯合于體性之氣乃於腦發導之通無塞閉也從心出者亦有二大絡一上一下一其分細周身悉與心絡同所不同者彼行血存血此專導引熱勢及生養之略耳心以呼吸進新氣追舊氣直令周身脈与之應

藏未化者腎也脾膽腎雖皆成血之器然不如肝獨受結之受生體性之氣故肝貴也肝以竅體內收半變之脈漸從本力全變為血而血之精分變為腦血露所謂體性之氣也此氣敏細能通百脈數百竅引血周行遍體入本血一分由大絡入心先入右竅次移左竅漸致細微半變為露所謂生養之氣也此氣能引和血周身以存原熱又此應一二分從大絡入腦中又變愈細愈精以屬動覺之氣乃令五官四體動覺各得其分矣

少間不應輒生寒熱諸症當者必從三節躍動之勢揣和病源蓋以此也腦以散動覺之氣厥用在前第腦距身遠不能引筋而達百肢復用頸脊髓連腦為一因通及焉腦之皮分內外層內柔而外堅既以保全本氣又以肇始諸筋之自開出者六偶獨一偶踰頸至胃下垂胃口之前餘皆仔項內導氣於五官或令之動或令之覺人從脊髓出筋三十偶各有細肌勾分無膚不及其與膚接處稍寬似膚以屬膚始緣以引氣入膚充滿周身無不靈

明哉

六氣論三

使生養助覺肢各效窮哉
星湖先生曰此誤傷於暑
醫家更覺詳盡不可沒也

劑量論

藥之斤兩正宜視其氣味權其輕重今人徒執古方謹守
其名而輕違其實試論黃連一味醫書所用皆唐黃連可
日本黃連苦寒倍甚而方云一錢輒用一錢朝鮮黃連本
非同類兼且薄劣而方云七分輒用七分古醫以唐黃連
對格而今以峻者劣者等而比之得非全失本意乎

凡八節

且我國所謂沙參即蔞薺之類耳本是別物試覽燕肆而
見之恰似尾參真可以推代人參耳又如厚朴我國舊用
唐材故蘇氏湯液篇亦標唐字自四五十年來忽稱濟州
產厚朴自此不用燕薺余嘗厚朴之味與本材所論大不
相符庶賢燕市而來則別物也皮色相類而膚理絕殊
州者純劣今口味又微而燕薺者入口便覺辣烈下咽
能通滯疏厥厚朴之名而已又如牡丹花我國能貴唯等
相名園董有一二本可何藥鋪之得牡丹皮津液最厚
口陰氣內明故利於通陽氣內暗故利於遠張介曰不
能近視者陰不足也不能遠視陽不足也

時令論

景岳謂人於暑節外熱內寒於冬月外寒內熱以井泉之
夏冽冬溫譬之禁時令藥此固明達之見也欲以余觀
之其內外之說亦似乎不經體驗余見人之肌肉皮膚暑
節多炎冷如冰冬月多溫煖如蟬者大抵天地之理今物
學膏故鳥獸存冬生醢毛在夏落而草蓋以耐寒耐暑也
二心月之夏令冬溫安知非與此一理故冬夏之所宜

近視論

察唯外氣是已外氣火入臟腑觸大肌膚中暑不得
不用寒涼之藥以滌之此單言而此唯一二劑中病則
止若其全身本氣則夏月多冷冬月多溫若過用時令之
藥必致敗也且權承日理暑月脈清暑大和湯五劑即成
至是也可不戒哉余曰人身
於夏節未理俱令
李明之曰不能近視者陽不足也不能遠視者陰不足也
王海藏曰不能近視者無水也不能遠視者無火也劉宗厚
曰陰氣內明故利於通陽氣內暗故利於遠張介曰不
能近視者陰不足也不能遠視陽不足也

出陰陽二字丁子

說來說去則其所辨難畢竟圖圖不切事情目之近視遠視唯係瞳心之平突平則視心會於遠故遠視突則視心會於近故短視如鑿鑿之平者文字離目稍遠方得利視其突者利於近視稍遠則炫晃而不可視矣少奉血氣方銳瞳凡突欲故利於近老人血氣消縮瞳凡平漫故反欲令物離目稍遠此皆目所顯著之理干陰陽何事而若彼其紛紛哉人有短視者見其瞳皆大凸異常

人面瘡論

人面瘡世以爲怪疾疑爲鬼祟余未見是病然以理推之

無足怪者凡物之外明滑而內幽黑者物照無不如鏡但使瘡窠明閃而根有黑點則人面照之必著其形人頰亦頻入笑亦笑只是一小鏡也何足爲異意者此瘡卽黑疔也凡瘡之黑者皆毒盛而欲治此宜與痘家黑疔同法不可驚慌失措也

油俗名真研汁塗之貼膏痛定而紅暈斂一兩日卽痊背脊亦效又腦疽初發

和麻